

# 말 한마디에 정을 주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음세게나 보이는 물질세계나 모두가 이렇게 합류 화해서 서로가 무전통신기로 통신을 하면서, 날 아다니는 새나 지렁이도 서로 언어를 통하고 서로 말을 통하고, 무의 세계의 영혼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것이 모두가, 육신이 없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진 못해도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교(交)'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불교라는 말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생류가 돌아가면서 서로 통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진짜 불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문** 저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떠한 삶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모른 채 단지 좋은 대학과 학과에만 매달리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이 듭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삶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끌어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도 나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아이들을 이끌어 준다 것이 참 난감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손색이 없이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답**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씨가 둘이 아니듯이 때려야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콩씨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씨가 없으니까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오니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씨를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는 살아가는데 아이, 글썄 누가 백일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삼천 배 절을 하겠어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主人空),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관(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썄, '난 잠, 아이 바빠서.' 하고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

답니다.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까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씨는 때려야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훌륭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오로다가 만났다 이리다 하면,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윤통 그 속을 씹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는 계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밭다 곱다를 떠나서, 또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또는 자식이 잘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또 자식을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는데 억지로 부모 뜻대로 강요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버려놔 가지고 그르치게 만들거나 또 죽게 만들거나 병들게 만들거나 이런 법이 없도록 여러 분께서 극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쥐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고,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사는지 그런 걸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죠. 그러면

##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더 빛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때려다 하면 '아이, 요즘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여러분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空)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말려 놓고 지켜보지만 하라 이런 겁니다. 깨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 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놔두고 행해야지, 말로나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지려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주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파리가 저서 떨어지고 저서 떨어지는 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만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작아라고 할 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든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냐.' 하고 자꾸 관해 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야.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이 잘못한다 여전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식들을 위한다면, 위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여 서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정을 주고 말 한마디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잘할 수 있다면 이말을 하지 않고 모든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또 사회도 문란하게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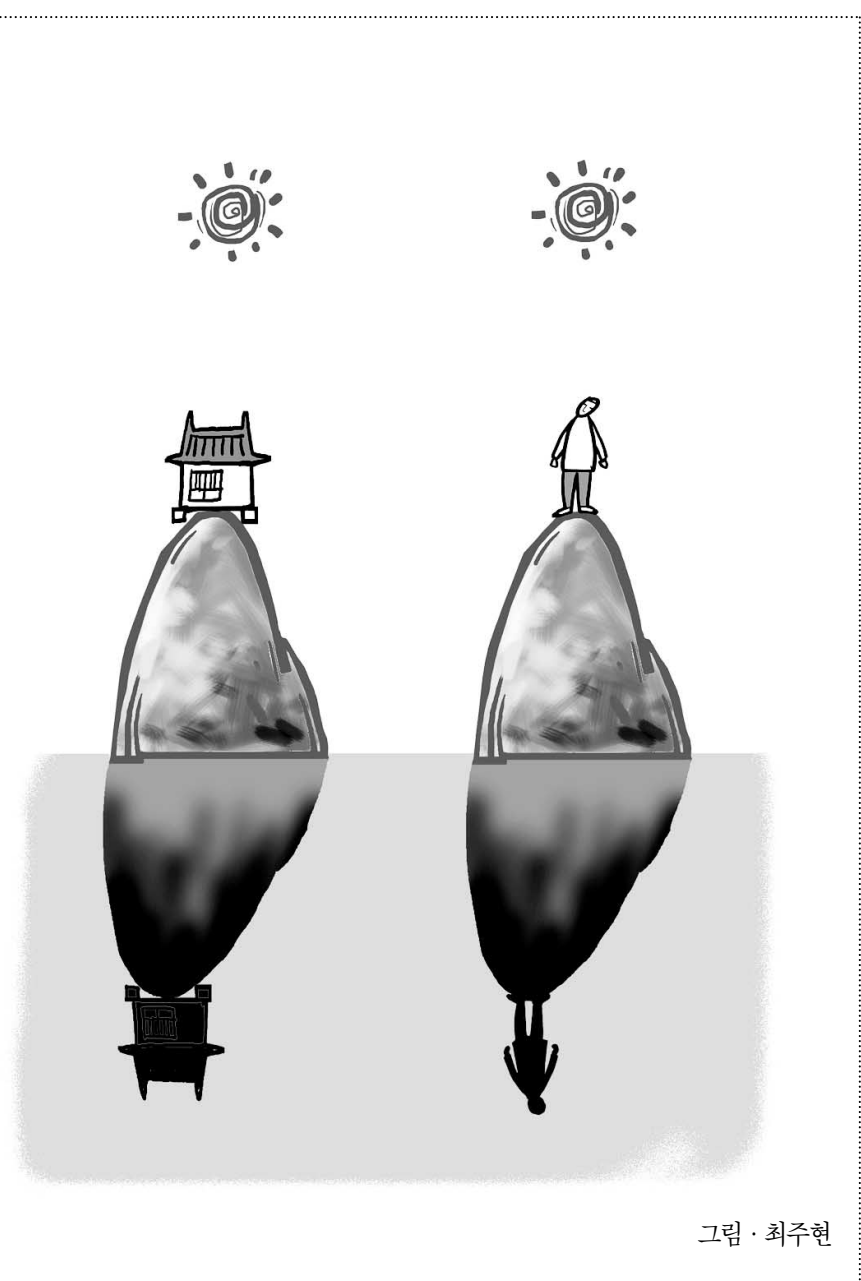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전기온돌방을 생각하고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50% 절감)  
(난방비 70% 절감)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을 생각하러 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기	도시가스	전기온돌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m <sup>3</sup>	668원/kw	1250원/m <sup>3</sup>	1000원/L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원)	588kw	1650kw	124m <sup>3</sup>	1569kw	124m <sup>3</sup>	182L
월간난방비	39,200원	8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차수	100	155	202	267	395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령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

2019년 대비 (10월~12월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유시점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정품(미국 칼로리쿠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전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의 윤량원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여래 여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아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염 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제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 1) 전신에 거품이 나오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아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자, 불자들에게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 간(肝)의 건강

간지방간염...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계곡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출 (민속농원)